

편집위원

구갑우(경남대) 김상배(서울대) 민병원(이화여대) 손열(연세대)
신범식(서울대) 신상범(연세대) 신옥희(서울대, 위원장)
이승주(중앙대) 이옥연(서울대) 이왕휘(아주대) 이용욱(고려대)
장인성(서울대) 전계성(서울대) 조동준(서울대)

데탕트와 박정희-세계정치14

발행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 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220동 504호)
전 화 02-880-6311
팩 스 02-872-4115
이메일 ciscis@snu.ac.kr

초판1쇄 인쇄 2010년 3월 10일
초판1쇄 발행 2010년 3월 20일

펴낸곳 논형
펴낸이 소재두
편 집 소재천
등록번호 제2003-000019호
등록일자 2003년 3월 5일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성현동 7-77 한림토포프라자 6층
전 화 02-887-3561
팩 스 02-887-6690

ISBN 978-89-6357-110-2 94340
값 15,000원

서문

근래 한국의 국제정치학 연구는 질적, 양적인 면 모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다양한 이론과 의제가 논의되고 정책적인 방면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국제정치학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외교정책사도 충분히 발전된 분야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갖는 학문적, 현실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이후 각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대한 엄밀한 역사적 서술과 분석은 그다지 풍부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냉전의 도래와 함께 성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외교정책 전개 모습을 보여 왔고, 때로는 행위자 차원의 대응이 체제적 전환의 양상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과 수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비교적, 혹은 통합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외교정책사 연구는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사이의 효과적인 학제적 결합과 더불어 국제정치학 내부의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행위자와 체제 사이의 구성적인 존재론에 대한 ‘주체-구조의 문제’(agent-

structure problem)의 고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를 탐색하는 미시 이론과 거시이론의 결합 그리고 안보 영역과 정치경제 영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의 연결이 그러한 의제에 해당한다. 본 학술지는 제8호에서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integrative approach)을 통해 이승만 정부 대외정책의 주제를 다룬 바 있었다. 이번 호에서는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해서 데탕트 시기 박정희 정부의 대외정책이라는 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박태균은 자신의 논문에서 외교정책 주체로서 박정희의 안보구상과 그에 대한 구조적 제약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과 더불어 동아시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구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닉슨 행정부의 대 베트남 정책의 변화 이후 구체화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체제요인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의 논문은 지적한다. 신유희의 논문은 행위자의 관념(idea)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체제전환의 시기에 박정희가 가졌던 위협인식을 중심으로 그가 공격적 현실주의자였는지 아니면 방어적 현실주의자였는지의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전략무기 개발을 통한 독자적 군사력 증강의 시도를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데탕트 시기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방어적 현실주의가 지적하는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국가의 행태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박원근은 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외부적 구조를 형성하는 미국 대외정책의 변수를 고찰한다. 그의 논문은 닉슨과 카터 대통령 시기 사이에 존재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포드 대통령 시기 미 대외정책의 변화를 다루는데, 1974년과 1975년의 정책 비교를 통해 포드 행정부가

한반도의 안보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분석해낸다. 마상윤은 그와 반대로 한국의 국내정치를 검토하면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서로 다른 인식이 안보논쟁을 통해 데탕트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의 위기론과 김대중의 기회론을 비교한 결과 그의 논문은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내안보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장된 면은 있지만 박정희의 안보인식이 나름대로의 적실성을 갖는다고 본다.

류상영과 니시노의 논문은 모두 데탕트 시기 한국의 안보와 정치경제의 특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류상영은 주체-구조 문제의 틀을 사용하면서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과 방위산업 정책 추진을 비교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국제정치적 제약과 정책적 선택의 면에서 양자는 차이점을 보여주며, 후자에 있어서 구조적 요인이 좀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였다. 니시노는 중화학공업 정책의 추진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박정희가 일본 모델을 차용한 부분과 한국의 사례가 갖는 차별성을 동시에 고찰한다. 그의 논문은 공업구조개편론에서 나타나는 초기의 입안과정에서의 일본으로부터의 학습의 측면을 고찰한 후, 방위산업과의 연계와 박정희의 적극적 추진전략의 맥락에서 한국의 특수성을 포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교정책사의 연구는 일반적인 외교사와는 달리 좀 더 다양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를 포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성과 체계성은 외교정책의 수행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현재의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끔 한다. 데탕트 시기 박정희의 정책적 선택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제전환의 시기에 한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부터 기획의 의도를 보다 잘 살리기 위해 단행본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책임편집자를 병기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셔서 귀중한 논문을 집필해주신 저자들과 사회과학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맡아주고 계시는 논형의 소재두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국제문제연구소 간사 나호성 군, 이찬송 군 그리고 한송이 양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편집진을 대표하여
신육희

Contents

005	서문 신육희
011	1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 집단 안전보장 체제 구상과 좌절 박태균
041	2 데탕트와 박정희의 전략적 대응 _ 박정희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인가? 신육희
069	3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년 _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 박원곤
101	4 데탕트의 위험과 기회 _ 1970년대 초 박정희와 김대중의 안보인식과 논리 마상윤
135	5 박정희의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정책 _ 구조-행위자 모델에서 본 제약된 선택 류상영
167	6 일본 모델에서 한국적 혁신으로 _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둘러싼 정책과정 니시노 준야
I 자유 주제 I	
207	7 『패전후론』과 전후 일본 내셔널리즘 _ 내셔널리즘 이론에 의한 분석 김만진